

3.1절 기념사업 '대한이 살았다'

김제시 아리랑문화마을, 스탬프 투어·독립지사 미니블록 조립 등 3개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는 아리랑문화마을이 3.1절 기념사업으로 '대한이 살았다'를 3월 3일부터 6일까지, 10일부터 13일까지 2차례에 걸쳐 총 8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이 살았다'는 △문학마을 스탬프 투어(부제: 일제강점기 현장 속으로), △근대 청년 학생 복식체험(부제: 독립선언의 주인공이 되어), △독립지사 미니블록 조립(부제: 우리 곁에, 빛나는 그들)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리랑문화마을이 3.1절 기념사업으로 '대한이 살았다'를 개최한다. 사진은 독립지사 미니블록.

많은 신념으로 염축한 식민 통치를 돌파해 낸 학생 향쟁의 주역으로 분하는 체험이다. 독립지사 미니블록 조립은 유관순, 김구, 안중근 지사의 미니블록을 조립하며 독립지사의

헌신을 기리는 체험이다. 문학마을 1층 로비에 서 진행되며, 총 900개가 준비되어 있으나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액운 날리고 안녕·풍요 기원”

진안중평굿보존회, 정월대보름굿 '망월이야' 행사 열려

진안군은 병오년 새해 첫 보름달을 맞이해 지난달 2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학천지구(구 진안고추시장)에서 군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굿 '망월이야' 행사가 개최됐다.

과 가까호호 마당뿔이를 진행, 마을의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흥겨운 풍물놀이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시풍속 중 하나다. 이번 행사에서는 잊혀가는 전통을 되새기기 위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소원지 쓰기, 쥐불놀이 시범, 제기차기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등 문화체험은 물론 보름음식



나눔과 중평굿보존회에서 '부림'을 제공했다. 달이 떠오르는 시각에 맞춰 행사의 백미인 달집태우기가 시작됐다. 달집에 불을 지피며 한 해의 나쁜 기운을 태워 보내고, 중평굿보존회의 역동적인 액마이굿과 정월대보름굿 공연이 펼쳐졌다.

/진안=우태민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K-국악 스테이지'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은 2026년 기획공연 K-국악 스테이지의 첫 공연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선율에 오른 곳'을 선보인다.



로 하나 되는 축제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풀어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수류산골마을 정월대보름 달빛축제 개최

전통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2026년 수류산골마을 정월대보름 달빛축제가 3월 3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류산골체육휴양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수류산골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주민 화합과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다.

축제는 오후 6시 풍물 공연으로 흥겨운 장단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이어 달집 소원지 쓰기 체험이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는 보름음식과 귀밝이술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는 한 해의 액운을 태우고 희망을 밝히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는 지난 2월 27일, 제96회 춘향제 제2기 SNS 시민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제96회 춘향제” 적극 홍보 나선다

남원시, 제2기 SNS 시민홍보단 발대식 가져

남원시는 지난 2월 27일, 제96회 춘향제 제2기 SNS 시민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2기를 맞는 시민홍보단은 기지팀 10팀과 영상 콘텐츠팀 20팀 등 총 30팀이 최종 선발, 지난해 대학생 홍보단의 성공적인 활동에 힘입어 올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없애고 운영 규모를 확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홍보단원들이 참석해 활동 지원 안내와 기본 홍보 교육을 이수했으며, 임명장과 기자증을 전달받았다.

시민홍보단에게는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제96회 춘향제 방문 시 숙박비 지원과 '대동 길놀이' 등 주요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발된 SNS 시민홍보단은 제96회 춘향제 공식 시포터로서 앞으로 3개월간 남원의 명소와 관광, 축제, 맛집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단원들의 개인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널리 홍보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나의 봄, 한 권의 책' 참여자 모집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이 지역민의 소중한 삶의 궤적을 기록으로 담아내는 2026년 지역민 생애사 글쓰기 프로그램 '나의 봄, 한 권의 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에세이, 시 창작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생애 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생애사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의 삶을 하나의 서사로 바라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재발견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의는 '글마을조각가'로 잘 알려진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정배 교수가 맡는다. 김교수는 에세이 '나의 연발', 시평집 '나는 시를 모른다'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전문가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3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또는 평일 저녁(오후 6시 30분~8시 30분) 부안 석정문화관에서 총 11회에 걸쳐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부안군민(성인) 20명 내외이며,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인원 초과 시 신규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